

평창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6. 10. 2(월) 평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5. 10. 10(화)
- 다. 상정일자 : 2005. 10. 19(목) 제133회 평창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

2. 제안이유

- 가. 봉평도시지역내 기존의 학교시설(봉평 중·고교)과 일반상업지역이
연접해 있어 학교는 건전한 환경조성이 어렵고 상업지역은 학교
시설로 인해 각종 행위제한을 받아 상가 활성화가 어려운 바 상호
상충되는 문제해결 및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시설의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임.
- 나. 이에 학교시설 이전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상업지역과 충분히
이격된 장소(창동리 332번지 일원)인 창동근린공원과 일반주거
지역내에 학교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필자

- 가. 용도지역 변경(결정)
 - 변경없음
- 나. 군계획시설 변경(결정)
 - 봉평 중·고등학교 : 17,010㎡ ⇒ 38,000㎡(증20,990㎡)
 - 창동 근린공원 : 219,770㎡ ⇒ 187,040㎡(감32,730㎡)

4. 검토결과

- 본 의견청취안은 봉평중·고등학교 학교시설과 일반상업지역이
연접해 있어 학교의 건전한 환경조성이 어렵고, 상업지역은
학교시설로 인한 각종 행위 제한으로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업지역과 떨어진
봉평면 창동리 325번지 일원으로 봉평 중·고등학교를 이전하고자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봉평 중·고등학교 부지를 당초 17,010㎡에서 20,990㎡를 증가
시킨 38,000㎡로 하고
 - 이에 따라 창동 근린공원 부지를 현재 219,770㎡에서 32,730㎡를
축소시킨 187,040㎡로 변경하는 것임
- 검토결과 "본 건에 대하여는 변경결정의 취지에 맞게 학교부지와
상업지역간 200m이상의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향후 학교정화구역
규정에 저촉되어 지역상인들의 생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평창 군기본계획(안)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1. 외부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6. 10. 2(월) 평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5. 10. 10(화)
- 다. 상정일자 : 2005. 10. 19(목) 제133회 평창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

2. 제안이유

- 가. 평창군지역은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암면 횡계리 일원에 횡계 도시기본계획구역의 면적 6.597km²에 대해 기본 계획이 수립(공고 일자 : 1994년 10월 25일) 되어 있는 상태이나
- 나. 2003년 1월 1일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편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 행정구역(도시 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한 군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되어 금회 군기본계획 면적 범위를 평창군의 행정 구역 면적인 1,463.680km²로 조정하여 평창군의 지역특성에 적합한 토지이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2014년 동계 올림픽 유치에 대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0년 평창 군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평창군 기본계획은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계획인구를 60,000명으로 설정하였으며,
- 나. 군기본계획구역은 평창군 전체 행정구역 면적(1,463.680km²)을 대상으로 수립하여, 평창군의 도시 미래상 확립 및 경쟁력있는 공간

체계를 위해 평창군을 3개권역에 의한 3개 지역중심생활권, 5개 거점생활권으로 구축하였음

다. 토지이용계획은

- 생활권역별 목표연도 정주인구를 감안하여 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보전용지로 구분하여 계획하였고,
- 평창군의 토지이용 실태파악을 통해 보전과 개발이 공존하는 2020년 평창군 미래상 실현에 적합한 이용계획을 수립하였음

라. 교통계획에 있어서

- 평창군 관내를 통과하는 연장 53.5km(4차선)의 영동고속도로 수용
- 평창군 관내 통과하는 원주 ~ 강릉간 철도노선계획 수용(연장 53km)
- 중서북부권 및 동북부권의 주요관광자원과 연계된 순환형 관광경철도 계획 및 순환도로 체계 구축으로 접근성 향상도모
- 국도 3개노선(31호,42호,59호)에 대해 4차선 확장 및 선형변경 계획반영
- 지방도 4개노선(408호,410호,424호,456호)에 대해 도로 확포장 및 선형변경 계획반영
- 진부에서 도암면내 관광지(알펜시아리조트 및 용평리조트등)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진부도시지역에서 알펜시아리조트간 연계 도로망 구축

마. 공원계획에 있어서

- 오대산국립공원 면적 13,284㎢에 대해 지역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국립공원으로 반영
- 군관리계획 및 지정 기본계획에 계획되어 있는 공원중 봉평 제1근린공원을 제외한 공원에 대해서는 면적변경 없이 군기본 계획에 반영음.

(봉평고등학교 이전계획에 따라 봉평근린공원내 부지 32,730㎡ 축소)

바. 경관계획에 있어서

- 자연이 숨쉬는 역사, 문화, 관광중심도시라는 경관테마를 바탕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경관계획 수립을 통해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조망권경관지구 등의 경관지구 계획을 수립하였음

4. 검토결과

- 본 의견청취안은 2003년 1월 1일부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편으로 인해 행정구역(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됨
 - 금회 군기본계획 면적 범위를 평창군의 행정 구역 면적인 1,463.680km²로 확대조정하여 평창군의 지역특성에 적합한 토지이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 2014년 동계 올림픽 유치에 대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립한 2020년 평창 군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평창군 기본계획은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계획인구를 6만명으로 설정하였으며,
 - 군기본계획구역은 평창군 전체 행정구역 면적을 대상으로 수립하였고, 평창군을 3개권역에 의한 3개 지역중심생활권, 5개 거점생활권으로 구축하였으며
 -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공원계획, 경관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 검토결과 본 건에 대하여는 "군기본계획 수립시

- 도암면 황계리 지역에 올림픽 배후 운동장 조성사업 예정지역을
삽입
- 주거지역 우선확장 지역에 황계7리 "명가 대관령" ~ "JCI대관령"
사무실 뒷편 지역 포함
- "고향이야기" ~ "부강연립·대관령주유소"로 이어지는 부분(즉,
우회도로 좌측)을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시에는 인근지역주민 및 토지소유주들과의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관련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 교통계획 수립시에는 평창 ~ 제천, 도암 ~ 정선구간의 교통계획이
포함될 수 있도록 중점 검토
- 기본계획상의 상세 계획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작성되어 향후
군기본계획이 우리군의 비전과 전망을 제시하는 지표가 되도록
내실있게 작성되어야 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